

2018 3.24 시행 서울시 7급 한국사 해설 공무원 장원급제

◎공무원 단기합격을 이끄는 공무원 장원급제!
합격의 기쁨을 그대에게 안겨드립니다.

2015-17 50명 합격, 700명 상담,
공무원 5관왕 정명재 원장의 간결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강의!
2018년 합격의 주인공이 되세요!

카페: www.jangwon365.com

홈페이지: <http://cafe.daum.net/jangwon96>

1. <보기>의 (가)에 해당하는 인물의 활동으로 가장 옳은 것은?

신인(神人)이 말하였다. “지금 그대 나라는 여자가 왕위에 있으니 덕은 있지만 위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나라가 침략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는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가)가(이)에게 다시 물어보았다. “고국에 돌아가면 어떤 이로운 일을 해야 합니까?” 신인이 답했다. 황룡사의 호법룡(護法龍)은 나의 맏아들입니다. 범왕(梵王)의 명을 받고 가서 그 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고국에 돌아가거든 절 안에 9층탑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이웃나라가 항복할 것이고, 구한(九韓)이 와서 조공할 것이며 왕업의 길이 편안할 것입니다. (중략)” 정관 17년 계묘 16일에 (가)는(은) 당나라 황제가 준 불경과 불상, 승복과 폐백 등을 가지고 와 탑을 세울 일을 왕에게 아뢰었다.

- ① 세속오계를 통해 당시 신라사회가 요구하는 도덕관념을 가르쳤다.
- ② 대승불교의 두 흐름인 중관과 유식의 대립을 극복하며 화쟁을 주장하였다.
- ③ 대국통(大國統)에 임명되어 출가자의 규범과 계율을 주관하였다.
- ④ 질병 등 현실적 재난 구제에 치중하는 밀교를 전파하였다.

답: ③

해설: 신라의 자장율사에 대한 설명이다. 자장율사는 중국 당나라에 건너가서 화엄종의 두순(杜順)과 계율종(戒律宗)의 도선(道宣)에게서 배운 뒤 신라로 돌아와 계율종을 전파하였고, 대국통이 되어 승려의 규범과 승통의 일체를 주관하였다. 또한 황룡사 9층 목탑의 창건을 선덕여왕에게 건의 하여 9층 목탑을 세웠다.

- ① 세속오계(世俗五戒)는 원광법사가 제창한 것이다.
- ② 화쟁사상을 주도한 이는 원효대사이다.
- ④ 우리나라에 밀교를 전파한 이는 신라의 명랑대사이다. 그는 진언종의 별파인 신인종(神印宗)의 초대(初代)가 되었다.

2. <보기>의 고려 후기 역사서를 시간 순으로 옳게 배열한 것은?

- (㉠). 민지의 <본조편년강목>
- (㉡). 이제현의 <사략>
- (㉢). 원부, 허공의 <고금록>
- (㉣). 이승휴의 <제왕운기>

- ① (㉠)-(㉣)-(㉡)-(㉢)

- ② (ㄹ)-(ㄱ)-(ㄴ)-(ㄷ)
- ③ (ㄷ)-(ㄹ)-(ㄱ)-(ㄴ)
- ④ (ㄹ)-(ㄷ)-(ㄱ)-(ㄴ)

답: ② (ㄹ)-(ㄱ)-(ㄴ)-(ㄷ) 이다.

<원 간접기의 역사서 순서>-시대순

- ◎ 삼국유사(일연)
- ◎ 제왕운기 (이승휴)
- ◎ 천추금경록(정가신)
- ◎ 고금록(원부)
- ◎ 본조편년강목(민지)
- ◎ 사략(이제현)

암기: 사기를 치고 천금을 얻으려 하지만 안돼서 강제로 약(략)탈하였다.

3. 조선시대 과거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소과인 생원과 나 진사과에 합격하면 문과에 응시 할 수 없었다.
- ② 생원과나 진사과의 초시에는 지역별 할당인원을 정했지만, 문과의 경우에는 지역 할당 없이 초시, 복시, 모두 시험 성적순으로 선발하였다.
- ③ <경국대전>에서는 탐관오리의 자식, 재가한 여성의 아들과 손자, 서얼의 응시를 제한하고 있다.
- ④ 문과합격자에게는 합격증서인 백패를 수여하였다.

답: ③

해설: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예전」, 제과에서는 과거 응시제한대상으로 탐관오리의 자식, 재가한 여성의 아들과 손자, 서얼의 응시 제한을 규정하였다.

- ① 소과인 생원과, 진사과에 합격한 자와 성균관 재학중인 학생과 현직 당하관에게 응시자격이 부여되었다.
- ② 생원과와 진사과의 초시는 할당인원이 없으나, 문과(대과)의 경우에는 초시에서 240명 복시에서 33명으로 합격인원을 정하여 선발하였다(전시).
- ④ 문과합격자와 무과합격자는 합격증서로 홍패(紅牌)를 수여했고, 초시 합격자에게는 백패(白牌)를 수여하였다.

4. <보기>의 1960-70년대에 전개된 민주화 운동을 시간 순으로 옳게 배열한 것은?

- (ㄱ) YH 여성 노동자들이 야당당사에서 농성을 시작하였다.
 (ㄴ) 삼선개헌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ㄷ) 교련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위수령이 발동되었다.
 (ㄹ) <동아일보> 기자들이 언론자유 수호투쟁을 전개하였다.

- ① (ㄴ)-(ㄱ)-(ㄷ)-(ㄹ)
 ② (ㄴ)-(ㄱ)-(ㄹ)-(ㄷ)
 ③ (ㄴ)-(ㄷ)-(ㄱ)-(ㄹ)
 ④ (ㄴ)-(ㄷ)-(ㄹ)-(ㄱ)

답: ④ (ㄴ)-(ㄷ)-(ㄹ)-(ㄱ)

해설:

- (ㄴ) 삼선개헌 반대투쟁(1969. 9)
 (ㄷ) 교내 교련반대시위 (1971.4.2.)
 (ㄹ) 동아일보 언론자유 수호투쟁 (1974.10.24.)
 (ㄱ) YH 여공 신민당사 농성사건 (1979. 8.9~11) 순서이다.
 cf) 3·1 민주 구국선언(1976.3.1. 명동성당, 원주 지학순 주교)

5. <보기>의 글이 발표된 사건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전개된 민족운동은?

- <보기>
- 아, 우리나라, 우리민족의 치욕이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 생존경쟁이 심한 이 세상에 우리 민족의 운명이 장차 어찌 될 것인가.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고, 죽기를 맹세하는 사람은 살아나갈 수 있으니 이는 여러분이 잘 알 것이다.

- ① 지금 의의 깃발을 치켜들고 ‘보국안민’을 생사의 맹세로 삼았다.
 ② 군인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다.
 ③ 오늘 병사를 일으키는 것은 국모의 원수를 갚으려는 것이다.
 ④ 충남 정산에서 전 참관 민중식이 의병을 일으켰다.

답: ④

해설: 보기의 지문은 을사조약의 체결에 항거하며 자결한 민영환(1861~1905)이 남긴 유서이다. 을사조약의 체결 뒤 을사의병운동이 일어났으며 전 참관인 민중식이 충남 정산에서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과 맞서 싸웠으나 패배하였다.

- ① 전봉준을 위시한 동학농민군이 내건 구호이다.

② 1907년 대한제국 군대해산 조치에 항거하며 자결한 시위대 1대대장 박승환 참령(오늘날 소령)이 남긴 유서의 내용이다. 박승환 참령의 자결은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참가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③ 국모의 원수 이야기는 을미의병이 내건 구호이다.

6.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항하여 전개된 다음의 민족운동 가운데 그 시기가 가장 늦은 것은?

- ① 임시정부는 헌법을 개정해 국무령을 채택하였다.
- ② 경성 고무공장 여성노동자들이 ‘아사동맹’을 맺으며 파업하였다.
- ③ 신채호가 <조선혁명선언>을 저술하였다.
- ④ 이봉창이 동경에서 일왕의 행사에 폭탄을 던졌다.

답: ④

해설: 이봉창의사가 동경에서 일왕의 행사에 폭탄을 던진 것은 1932년의 일이다.

- ① 임시정부가 헌법을 개정해 국무령제를 채택한 것은 1925년의 일이다.
- ② 경성 고무공장 여성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 것은 1923년의 일이다.
- ③ 신채호가 <조선혁명선언>을 발표한 것은 1923년의 일이다.

[중요!] <임시정부 개헌과정> 시험에 자주출제!!!

1차 개헌(1919)	대통령제
2차 개헌(1925)	국무령중심(내각제)
3차 개헌(1927)	국무위원(집단지도체제)
4차 개헌(1940)	주석제
5차 개헌(1944)	주석·부주석제

7. <보기 1>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1402(태종2년)에 의정부 정승 이무와 김사형이 발의하여 이희가 제작하고, 권근이 발문을 쓴 세계지도이다.

<보기 2> (㉠) 원나라 세계지도를 참고하고, 여기에 한반도와 일본 지도를 첨가하여 만들었다. (㉡) 지도의 중심에 중국이 위치하였고 중국과 한국을 실제보다 크게 그렸다. (㉢)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은 지도에 빠져있다. (㉣) 후대의 모사본 가운데 하나를 일본 류코쿠대학이 소장하고 있다. (㉤) 지도제작에 참여한 이희는 이보다 앞서 <동국지도>도 만든 바 있다.
--

① (ㄱ),(ㄴ),(ㄹ)

② (ㄱ),(ㄴ),(ㅁ)

③ (ㄴ),(ㄷ),(ㄹ)

④ (ㄴ),(ㄹ),(ㅁ)

답: ① (ㄱ),(ㄴ),(ㄹ)

해설: <보기 1>은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 대한 설명이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원나라시기에 아라비아 지도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원나라 지도에 한반도와 일본 지도를 첨가하여 만든 것으로, 중국 중심의 천하관이 들어갔지만,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의 지명도 들어가 있다. 후대의 모사본은 일본 교토 류고쿠대학과 니시혼간지라는 사찰이 소장하고 있다.

(ㄷ)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이 포함되어 있다.

(ㅁ) <동국지도>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 데 조선 전기의 동국지도는 조선 세조 9년(1463)에 정척, 양성지 등이 제작한 지도이며, 조선 후기의 동국지도는 영조때 정상기가 10리척을 단위로 제작한 지도이다.

8. <보기>의 (가)가 건립된 왕대에 있었던 일로 가장 옳은 것은?

내가 일찍이 (가)를 구경하기 위해 집안현에 이르러 여관에서 만주인 영자평이란 소년을 만나 필담을 나누었는데, (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가)가 오랫동안 초래(草萊)에 묻혀 있다가 최근에 이 지방 영희(英禧)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가운데 고구려가 중국 토지를 침탈했다는 자구들이 들어 있었으므로, 중국인들이 그것을 칼과 도끼로 쪼아냈습니다. 그 다음 일본인들이 (가)를(을) 차지하여 영업적으로 탁본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들은 닳아 없어지거나 이지러진 부분을 석회로 떼어 발랐는데 그동안 인식할 수 없었던 자구가 도리어 생겨나 참된 사실을 삭제되고 위조된 사실이 첨가된 것 같습니다.”

① 북연(北燕)왕인 풍홍을 둘러싸고 북위 및 송과 갈등을 빚었다.

② 거란족 비려의 3개 부락을 격파하고 소·말·양을 노획하였다.

③ 당나라에서 도사와 <도덕경>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도교의 일파인 오두미도(五斗米道)가 유입 되었다.

④ 이문집에게 명하여 <유기>를 <신집> 5권으로 개수하였다.

답: ②

(가)는 광개토대왕비이다. 광개토대왕의 아들 장수왕이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광개토대왕은 대대적인 정복활동에 나선 정복군주였는데 391년 거란족 비려의 3개 부락을 정벌한 일과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파한 일이 대표적인 정복 활동 가운데 하나이다.

① 북연의 풍흉을 둘러싸고 북위와 송과 갈등을 빚은 일은 436년, 5세기 장수왕 때의 일이다.

③ 당나라를 통해 도교가 고구려에 전래된 시기는 7세기 연개소문시절, 영류왕~보장왕 시기의 일이다.

④ 이문집이 <유기>를 <신집>5권으로 개수한 것은 6세기 말~ 7세기 초 영양왕시기의 일이다.

9. <보기>의 (갑)은 조선시대 신분층에 대한 설명이다. (갑)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릇 (갑)의 매매는 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사사로이 몰래 사고팔았을 때는 관청에서 (갑)과 그 대가로 받은 물건을 모두 몰수한다. 나이 16세 이상 50세 이하의 값이 저화 4천장이고, 15세 이하 50세 이상은 3천장이다. -<경국대전>

① 재산으로 취급되어 매매나 상속의 대상이 되었다.

② 부모 모두가 (갑)일 경우에만 자녀도 (갑)신분이 되었다.

③ 주인과 떨어져 독립된 생활을 하며 신공(身貢)을 바치기도 하였다.

④ 국가에 소속된 경우 관청의 잡무처리와 물품제작에 참여했다.

답: ②

해설: (갑)은 노비에 대한 설명이다.

여기서 저화 4천장과 3천장이 힌트가 되는데 저화는 조선 태종때 잠시 유통되었던 지폐이다. 즉 출제위원이 묻는 것은 조선의 노비제도에 대한 것이다.

조선시대 노비는 아버지 나 어머니 한쪽이 노비이면 자식도 노비가 되는 일천즉천제가 적용되었다.

10. 조소앙이 주장한 ‘삼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국 사상가 쑨원(孫文)의 삼민주의에서 영향을 받았다.

② 정치, 경제, 교육 분야에서의 균등을 주장하였다.

- ③ 토지 및 대기업의 국유화에 반대하였다.
- ④ 식민전쟁과 침략전쟁을 반대하였다.

답: ③

조소앙이 주장한 삼균주의는 중국의 사상가 쑨원(孫文)이 주장한 삼민주의에 사회주의적 영향을 참고하여 제창한 사상으로, 삼균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개인 간, 민족 간, 국가 간의 균등이며, 다른 하나는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이다.

<삼균주의>

- 개인 간의 균등 - 보통선거 · 국유화 · 의무교육을 통하여 각각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달성할 것.
- 민족 간의 균등 - 민족자결주의의 보편적 적용.
- 국가 간의 균등 - 식민지와 제국주의 철폐. 침략전쟁 반대.

11. <보기>와 같은 사상체계를 지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내세워 이(理)는 착하고 보편적인 것이나, 기(氣)는 착한 것 과 악한 것이 섞여있어 비천한 것으로 보았다.
- 4단(四端)은 이에서 발생하고, 7정(七情)은 기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 ① 주자의 서찰을 뽑아 <주자서절요>를 편찬하여 일본 주자학의 발전에 기여했다.
- ② 선배학자 이언적의 철학을 발달시켜 주리설(主理說)을 수립하였다.
- ③ 유성룡, 김성일, 정구, 장현광 등 영남학자에게 학설이 계승되었다.
- ④ 국왕과 선비가 지켜야 할 왕도 정치의 규범을 체계화한 <성학집요>를 지었다.

답: ④

해설: <성학집요>를 저술한 인물은 **율곡 이이**이다. 율곡 이이는 이기론(理氣論)을 주장하였다. 퇴계 이황은 4단7정론을 주장하며 주리론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서애 유성룡, 학봉 김성일, 한강 정구, 여헌 장현광 등의 영남학파의 계승으로 이어졌다. 이후 퇴계의 사상은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의 유학자인 하야시 라잔을 위시한 일본 유학자들을 통해 일본에도 영향을 미쳤다.

12. 정치적 입장이 노론이었던 학자가 쓴 책의 주요 내용을 바르게 소개한 것은?

- ① 실용과 허자의 문답형식을 빌려 고정관념을 상대적 논법으로 비판하였다.
- ② 부안 우반동에서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해 공전제와 토지 재분배를 주장하였다.
- ③ 첨성촌에 은거하면서 견문한 내용들을 백과사전식으로 저술했다.
- ④ 야사 400종을 참고해 조선 정치사를 객관적 입장에서 기술했다.

답: ① 실용과 허자의 문답형식을 빌려 저술한 책은 담헌 홍대용의 <의산문답>이다. 홍대용은 노론의 명문가에서 태어나 중상학과에 속하며, 실학사상을 연구하고 발전시킨 인물이다. 자연과학에 관심이 많았던 홍대용은 수학책인 <주해수용>과 실용과 허자의 문답형식을 빌려 저술한 <의산문답>에서는 지구의 자전설을 주장하였으며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저서로는 <담헌서>, <의산문답>, <주해수용>, <임하경륜>등이 있다.

② 전북 부안에서 공전제와 토지 재분배를 주장한 인물은 반계 유형원이다. 유형원은 남인 계열의 실학자로 미수 허목의 문하에서 배웠으며, 그의 사상은 중농학파에 속한다.

③ 경기 안산 첨성리에서 은거한 실학자는 성호 이익으로 백과사전식으로 저술한 그의 책은 성호사설이다. 이익은 남인 계열의 실학자이다.

④ 야사 400종을 참고하여 조선 정치사를 객관적 입장에서 기술한 책은 연려실 이공익이 저술한 역사서, <연려실기술>이다. 이공익은 소론계열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당쟁의 휘말리고 아버지와 자신이 유배가는 불운을 겪은 뒤 정계진출을 포기하고 연려실기술을 저술하였다.

13. <보기>의 강령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 할 수 없는 것은?

- 우리는 정치적·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 ① 일제의 민족분열 정책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 ② 농촌진흥운동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 ③ 자치운동의 확산을 경계하였다.
- ④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의 동의를 얻었다.

답: ②

해설: **농촌진흥운동**은 일제가 농촌의 생산력을 높이고 사회주의 계열의 농민운동을 차단함과 동시에 수탈을 목적으로 **조선총독부가 주도한 운동**으로 1932년부터 1940년까지 시행된 정책이다.

<보기>의 강령을 주장한 단체는 사회주의 독립운동세력과 민족주의 독립운동세력이 연합하여 1926년에 결성한 신간회의 대한 설명이다. 신간회에 대한 설명에 속하는 것은 ①③④이다.

14. <보기>에서 설명하는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도적들이 나라 서남쪽에서 봉기하였다. 그들은 바지를 붉게 물들여 스스로를 남들과 다르게 하였기에 사람들은 적고적(赤袴賊)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주와 현을 도륙하고 서울의 서부 모량리 까지 와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노략질하고 돌아갔다.

- ① 대구화상이 <삼대목>을 편찬하였다.
- ② 원종과 애노가 난을 일으켰다.
- ③ 최치원이 시무 10여조를 바쳤다.
- ④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웠다.

답: ④

해설: **적고적**은 896년 후삼국 시대에 일어난 도적떼이다.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운 일은 901년의 일이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적고적은 신라 진성여왕시기에 일어난 반란 세력을 이르는 말이다.

- ① 대구화상이 각간 위홍과 함께 만든 향가집 <삼대목>은 888년의 일이다.
- ② 원종 과 애노가 신라정부에 반기를 든 원종-애노의 난은 889년의 일이다.
- ③ 당나라에서 유학하고 관직생활을 하고 돌아온 최치원은 894년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조를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않았다.

15. <보기>의 정치적 사건이 일어난 왕대의 일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보기>

후궁이 낳은 왕자가 세자로 책봉되는 과정에서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집권하였으며, 송시열과 김수항 등이 처형되었다.

- ① 청과 러시아 사이에 국경충돌이 일어나자, 청의 요구에 따라 수백 명의 조총부대를 영고탑(지금의 지린 성)에 파견하였다.
- ② 병조판서 김석주의 건의에 따라 국왕 호위와 수도 방위의 핵심 군영 중 하나인 금위영이 설치되었다.
- ③ 안용복이 울릉도와 우산도(독도)에 출몰하는 왜인을 쫓아내고 일본 당국과 담판하여 그곳이 우리의 영토임을 승인 받았다.
- ④ 삼남지방에 대한 양전사업이 완료되었고, 세종 때 설치했다가 폐지한 ‘폐사군’의 일부를 복설하였다.

답: ①

해설: ① 은 **효종시기 청나라의 요청으로 일어난 나선정벌**에 대한 설명이다.

지문에서 **영고탑에 파견한** 시기는 1차 **나선정벌(1654)**에 해당한다. 효종은 변급을 사령관으로 150명의 군사를 청의 요청으로 파견한다.

①을 제외한 나머지의 일은 숙종시기의 일이다.

16. 고려 무신정권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위충은 의종 복위를 내세우며 집권 무신을 타도하고자 하였다.
- ② 산발적이던 민란은 김사미, 효심의 봉기를 계기로 연대하였다.
- ③ 최충헌은 명종을 폐하고, 신종, 희종, 강종, 고종을 차례로 세웠다.
- ④ 최이의 처가 죽자 왕후처럼 장례를 치루었다.

답: ①

해설: **조위충은 정중부와 이의방 세력의 토벌을 기치로 반란**을 일으켰으며 그의 반란에 북쪽의 40개의 성이 가담하였다. 그러나 반란은 실패했고, 개경의 진압군에 사로잡혀 죽었다.

17. 2018년 현재까지 유네스코에서 제정한 한국의 세계기록 유산이 아닌 기록물은?

- ① 왕의 비서실인 승정원에서 일지형식으로 쓴 기록문
- ② 박지원이 청나라를 다녀온 후에 기록한 기행문
- ③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저작물을 간행하기 위해 판각한 책판
- ④ 조선왕실 주요행사를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림을 넣은 책

답: ②

해설: **열하일기**는 유네스코가 제정한 한국의 세계기록 유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네스코가 제정한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은 다음과 같다.

기록유산	등재년도
훈민정음 해례본	1997
조선왕조 실록	1997
직지심체요절(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2001
승정원일기	2001
팔만대장경	2007
조선왕실의궤	2007
동의보감	2009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	2011
일성록	2011
난중일기	2013
새마을운동기록물	2013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2015
한국의 유교책판	2015

- ① 2001년 등재된 승정원일기에 대한 설명이다.
 ③ 2015년 등재된 한국의 유교책판에 대한 설명이다.
 ④ 2007년 등재된 조선왕실의궤에 대한 설명이다.

18. 고려시대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려 중이는 질기고 반질거려 등피지라는 별명을 얻었다.
 ② 삼한통보, 해동중보, 건원중보 등의 동전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③ 개경, 서경에 상설점포인 시전이 있었다.
 ④ 서리, 향리, 군인, 악공은 수조지를 받았다.

답: ②

해설: 건원중보, 삼한통보, 해동중보는 조정의 주도로 만들어졌으나 실생활에서는 널리 쓰이지는 않았다. **건원중보는 철로 만든 화폐**이다. 삼한통보, 해동중보는 동전(銅錢, 구리로 만든 화폐)

- ① 고려시대의 제지기술은 중국에서도 널리 인정받았다.
 ③ 고려시대의 주요 상설점포는 개경과 서경 등 큰 도시에 설치되었다.
 ④ 무산계 전시과에 해당한다.

19. <보기 1>과 <보기 2> 사이에 일어난 사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1>

7월 9일에 김유신 등이 황산(黃山)의 별관으로 진군하자 백제의 장군 계백(堤伯)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먼저 험한 곳을 차지하여 세 군데에 진영을 설치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유신 등이 군사를 세 길로 나누어 네 번을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장군 흠순(欽純)이 아들 반굴(盤屈)에게 말하기를

“신하된 자로서는 충성만한 것이 없고 자식으로서는 효도만한 것이 없다. 위급함을 보고 목숨을 바치면 충과 효 두 가지 모두를 갖추게 된다.” 라고 하였다. 반굴이

“삼가 분부를 알아듣겠습니다.” 라 하고 곧 적진으로 뛰어들어 힘을 다해 싸우다가 죽었다.

<보기 2>

고구려 대신 연정토(淵淨土)가 12성 763호 3543명을 이끌고 투항하였다.

연정토 및 함께 온 관리 24명에게 의복과 식량과 집을 주고 서울과 주(州)·부(府)에 안주시켰다. 12성 중 8성은 온전했으므로 군사를 보내 지키도록 하였다.

- ① 고구려에서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 ② 김춘추가 당에 가서 백제 정벌을 위한 군사 지원을 요청하였다.
- ③ 당이 신라왕을 계림주 대도독으로 임명하였다.
- ④ 검모잠이 안승을 받들고 고구려 부흥을 도모하였다.

답: ③

해설: <보기 1>은 나·당 연합군과 백제군이 격돌하였던 황산벌 전투에 대한 설명이다. 황산벌 전투에서 계백의 5천 결사대는 나·당의 5만 병력과 맞서 싸우다 전멸하였고, 660년 백제는 멸망하였다. <보기 2>는 668년 고구려의 멸망을 앞두기 전의 모습의 대한 기록이다.

당나라는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킨 뒤 그 지역에 안동 도호부와 웅진도독부를 설치하였고 신라에도 계림도독부를 설치하여 문무왕에게 계림주 대도독으로 임명하였다. 이는 신라를 집어삼키기 위한 당나라의 계책이었으며, 나·당 전쟁과 이후 당나라와의 관계 개선으로 없어졌다.

20. <보기>의 역사적 사건들을 시간 순으로 옳게 배열한 것은?

- | |
|--|
| (ㄱ) 모스크바에서 세 나라 외상들이 회의하였다.
(ㄴ) 제주도 파병과 정부에 반대하는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ㄷ) 경교장에서 백범 김구가 육군 소위 안두희에게 암살당하였다.
(ㄹ) 좌우의 정치세력이 힘을 합치려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ㅁ) 평양에서 남북의 정치, 사회단체 지도자들이 모였다. |
|--|

- ① (ㄱ)-(ㄴ)-(ㄷ)-(ㄹ)-(ㅁ)
 ② (ㄱ)-(ㄷ)-(ㄹ)-(ㅁ)-(ㄴ)
 ③ (ㄱ)-(ㄹ)-(ㅁ)-(ㄴ)-(ㄷ)
 ④ (ㄱ)-(ㅁ)-(ㄴ)-(ㄷ)-(ㄹ)

답: ③ (ㄱ)-(ㄹ)-(ㅁ)-(ㄴ)-(ㄷ)

해설:

- (ㄱ) 모스크바 3상 회의 (1945. 12)
 (ㄹ) 좌·우 **합**작운동 (1946.7~1947.7)
 (ㅁ) 남북**협**상운동 (1948. 4)
 (ㄴ) **여**순사건 (1948.10.19.)
 (ㄷ) 백범 김구 암살사건 (1949. 6.26.)